

중세초기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에서 사용한 왕호

육 명 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김정일전집》 제8권 232페이지)

일반적으로 왕호는 최고집권자인 임금의 칭호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사회제도의 정치적성격과 특징이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왕호에 관한 문제는 해당 시기 국가의 정치제도사를 연구하는데서 반드시 옳게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중세초기 사용한 왕호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중세초기 봉건국가들의 왕호와 관련한 기본사료는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에서 찾아볼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중세초기 왕호사용정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고구려의 왕호사용정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자료들을 보면 고구려에서는 독자적으로 왕호를 사용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나라가 세워진 초기부터 왕들이 죽은 다음 살아있을 때의 본명과 구별하여 왕호를 제정하여 불렀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왕이 죽은 다음 호를 주었는데 그것이 곧 왕호였다. 시조왕의 경우를 놓고보더라도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인데 임금의 자리에 있는지 19년만에 나이 마흔살로 죽자 룡산에 장사를 지내고 호를 동명성왕이라고 하였다. 동명성왕은 곧 고구려시조왕의 왕호였다.

《삼국사기》에서는 김부식은 고구려왕들이 태여났을 때의 본명을 명백히 밝혀주었으며 죽은 다음에 받은 왕호는 《호》(號), 《호위》(號爲), 《호왈》(號曰)이라는 표식을 하고 밝혀주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유리명왕을 비롯하여 대무신왕, 모본왕, 차대왕, 신대왕, 고국천왕, 산상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문자명왕,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등의 왕호는 《호위》의 표식으로, 동천왕과 중천왕, 서천왕, 봉상왕, 미천왕, 평원왕, 영양왕의 왕호는 《호왈》의 표식으로 기록하였다.

고구려에서 왕호를 짓는 방법은 몇가지로 제정되어있었다.

고구려의 왕호는 왕의 업적이나 생애의 특징, 죽어묻힌 장지와 연관시켜 지어부르거나 《신》(新), 《호》(好), 《성》(聖)과 같은 길상어를 붙여 독특하게 불렀다. 실례로 《대무신왕》은 뛰어난 무예를 평가하여 지은 이름이고 《광개토왕》은 나라의 령역을 크게 넓힌 그의 공적으로부터 불리워진 이름이며 《장수왕》이란 오래동안 생존한 임금이라는 뜻이고 《문자왕》이란 문장이 뛰어난 임금이라는 의미이다.

고구려의 왕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무덤이 있는 고장의 이름을 왕호로 리

용한것이다. 실례로 소수림왕이 죽자 고구려에서는 그를 소수림에 장사지내고 왕호를 소수림왕이라고 하였다.((삼국사기》권18 고구려본기)

고구려의 왕들인 민중왕, 모본, 고국천, 봉상 등은 다 국왕의 무덤이 있는 고장의 이름들이며 안장, 안원, 양원, 평원 등도 대체로는 그 왕들이 묻혔던 고장의 이름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에는 왕의 존호와 살아있는 임금에 대한 칭호가 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이 남긴 금석문들에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는 광개토왕의 칭호이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은 이름이 담덕이며 죽은 후에 령토를 넓힌 공적으로 《광개토왕》이라는 호를 받았다고 기록되었을뿐이다. 그러나 《광개토왕릉비》에는 그의 칭호를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왕이 죽은 후 받았던 모든 칭호들을 다 갖추어서 서술한 존호라고 볼수 있다.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라는 칭호는 더 간략하여 표현하거나 비슷한 칭호로 통칭되기도 하였다. 비문에는 그 뒤부분에 이 왕의 칭호를 약간 간략화하여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라고 쓴것이 보인다. 광개토왕의 공식적인 칭호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고구려의 금석문들에도 나타난다. 경주의 신라무덤에서 발굴된 호우에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이라는 광개토왕의 칭호가 기록되어있는데 《토지》는 《토경》과 같이 령토라는 뜻이다. 릉비보다 약간 후시기에 제작된 모두루무덤의 벽에 쓴 글에도 광개토왕의 칭호가 《국강상대개토지호태성왕》으로 기록되어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이 왕의 칭호를 단순히 《광개토왕》이라고만 하거나 더 간단하게는 《개토왕》이라고 한 것도 있으나 광개토왕릉비를 비롯한 금석문들에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라는 공식적이면서도 완전한 존호를 썼으며 그와 비슷한 명칭으로 통칭하였다.

광개토왕은 생전에도 일정한 칭호를 가지고있었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즉위하자마자 곧 《영락대왕》이라고 하였으며 《영락》은 동시에 그 년호로 되었다.

고구려에서 사용한 왕의 존호와 생존시 왕의 호칭법은 그후 발해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를 뚜렷이 보여준다.

실례로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비에는 이들의 아버지인 문왕의 존호가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으로 기록되어있다. 여기서 《대흥》, 《보력》은 모두 문왕의 통치시기에 사용한 년호인 동시에 문왕의 생존시 왕호였다. 이것은 광개토왕때의 《영락》이라는 년호가 곧 왕의 칭호로 되어 《영락대왕》이라고 불리운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또한 백제의 왕호사용정형을 보기로 한다.

백제의 왕호는 고구려의것과 일련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백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왕의 본명을 왕호로 사용하였다.

백제의 왕호는 5세기 70년대까지 왕의 본명과 구별이 없었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으로부터 삼근왕(재위 477-479)까지 왕들의 왕호는 그들의 본명과 같다. 실례로 기루왕에 대하여 첫머리에 《다루왕의 맏아들이다. 뜻과 식견이 넓고 원대하여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다루왕이 왕위에 있는지 6년째 되는 해에 태자로 되었고 50년에 왕이 죽자 왕위를 이었다.》라고 하였고 마감에 《52년 겨울 11월에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있다. 여기에는 왕의 계보와 왕위계승관계, 성격상특징이 나타날뿐 왕이 죽어묻힌 장지도 보이지 않는다.

백제에서는 고구려에서와 같이 왕이 죽은 후 왕호를 따로 주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그저 《왕》이라고만 하였다.

둘째로, 백제에서는 6세기초부터 시호를 왕호로 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삼근왕 다음인 동성왕(재위 479—501)부터는 본명과 왕호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동성왕에 대하여 《이름은 모대〈혹은 마모라고도 한다.〉이니 문주왕의 동생 곤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삼근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가 《23년 12월에 죽으니 시호를 동성왕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호를 사용한 국왕인 경우에는 그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동성왕에 이은 무녕왕, 성왕, 위덕왕, 혜왕, 법왕, 무왕은 모두 죽은 후 받은 시호이며 이것이 곧 왕호들로 불리워졌다.

또한 신라에서의 왕호사용정형을 보기로 한다.

신라에서 왕호의 제정 및 사용은 백제와 매우 유사하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왕호는 크게 두가지 류형으로 볼수 있다.

첫째로, 임금의 본명을 왕호로 쓴 경우이다.

시조 혁거세로부터 소지마립간(재위 479—500)까지가 여기에 속한다.

소지마립간이전의 임금들에 대하여 신라본기에는 주로 임금의 성씨와 혈통관계, 부모와 왕비,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경위 등을 기록하였을뿐 이름은 찍어 강조하지 않았으며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경우 함께 소개하였다.

실례로 《조분니사금(제분이라고도 한다.)이 왕위에 오르니 성은 석씨요, 별휴니사금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골정갈문왕이요, 어머니는 김씨 옥모부인이니 구도갈문왕의 딸이요, 왕비는 아이혜부인이니 나해왕의 딸이다. 전임금이 죽을적에 사위 조분왕으로 왕위를 잇게 하라고 유언하였다.》라고 쓰고나서 맨 마감에 《18년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라고 끝을 맺은 기록을 들수 있다. (《삼국사기》 권2 조분니사금)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신라에서는 소지마립간이 통치한 5세기까지는 왕의 본명에 《니사금》이나 《마립간》과 같이 군주를 나타내는 칭호를 붙여 왕호로 불렀다는것을 알수 있다.

둘째로, 임금의 시호를 그대로 왕호로 쓴 경우이다.

신라에서 시호가 제정된 지증마립간(재위 500—514)때로부터 전기신라시기인 문무왕까지는 물론 후기신라의 마지막왕까지가 여기에 속한다.

신라력사에서 왕의 시호가 처음 보이는것은 지증마립간때부터이다.

신라에서 왕의 시호의 제정은 국호 및 왕호의 고착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되어있는바와 같이 신라에서는 박혁거세의 사로건국과 더불어 국호를 《서나벌》이라고 하다가 65년 김알지의 출현과 함께 《제림》이라고 하였으며 307년에 다시 신라라고 부르다가 503년에 이르러 종전에 부르던 각이한 국호들 가운데서 《신라》라는 이름을 국호로 정식 공포하였다. 이와 함께 503년에 건국이래로 군주를 가리켜오던 각이한 방언들을 버리고 《신라국왕》이라는 칭호로 고착시켜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신라에서 이처럼 국호가 고착되고 왕호가 한문식으로 불리워진 503년은 지증마립간 4년이다. 그후 11년이 지난 514년 지증마립간이 죽었을 때 신라는 왕에 대한 시호법도 제정하였던것이다.

지증마립간이후로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을 비롯하여 전기신라의 왕들은 물론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왕들은 죽은 다음 시호를 받았다.

다음으로 삼국시기 사용한 호와 시호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호나 시호는 옛날사람들이 써온 호칭들중의 하나이다.

옛날사람들은 공식적인 본명과 함께 자나 호, 시호 등을 썼다.

본명은 태어났을 때 집안의 어른들이 향렬에 따라 지어주는 이름이고 자는 관례때 짓는 이름이며 호는 필명으로서 자기가 짓거나 제자들이 지어주었는데 주로 학자, 문인, 서예가, 화가들이 많이 지어불렀다. 본명이나 자, 호는 다 살아있을 때 불리워진 이름들이다.

시호는 사람이 죽은 다음 봉건국가에서 그의 이른바 덕망과 공적을 평가하여 붙여주는 칭호이다.

《증보문헌비고》(권239 직관고26)에 의하면 《시호라는것은 지나온 사적이다.》, 《그 시호를 듣고 그 정사를 알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호란 사람이 죽은 뒤 그사람의 행적에 따라 붙여주는 명칭이라고 하였다. 즉 《공덕》을 쌓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을, 《악행》을 남긴 사람에게는 불미스러운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것을 통털어 시호라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시호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치욕스러운 이름을 다 포괄하고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시호를 제정함에 있어서 《공덕》만을 찬양하여 시호를 정하였지 《악행》을 드러내어 시호를 정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시호는 생전의 《공덕》만을 찬양하여 붙여주는 칭호로 간주되었다. 시호에 적용되는 시호자는 규제되어있었고 때 시호자는 일정한 의미를 담고있었다. 시호는 임금이나 2품이상의 관리, 공신, 유명한 유학자가 죽었을 때 그의 생전의 공적과 덕행을 칭송하여 추증하였다.

고구려에서 사용한 호는 시호가 아니다. 고구려에서 국왕에게 시호를 적용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수 없다. 고구려에서는 국왕이 죽으면 《호》를 주었을뿐이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호와 시호가 명백히 구별되어있는것이다.

고구려에서 사용한 호는 후세사람들이 생존시기에 필명으로 많이 사용한 별호와도 구별된다. 고구려의 왕호인 《호》는 그들이 죽은 다음 받은것이였다. 고구려에서 왕호를 자기식으로 부른것은 고구려사람들에게만 있었던 독특한 방법이었다.

장수왕 거련이 사망하였을 때 이웃나라인 북위에서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거기 대장군 태부》의 증직과 《강》이라는 시호를 준적이 있었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북사》 권94 렬전82 고구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시호》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례대로 자기 식으로 장수왕이라는 호를 왕호로 삼았다.

고구려에서는 시호를 따로 제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삼국시기 왕에게 주는 시호법이 신라나 백제에는 있었으나 고구려에는 없었다.

고구려는 이처럼 왕호를 지어부르는데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방법을 리용하였고 그것을 내외에 파시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일부 문헌들에서 동명성왕을 시호라고 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후날 사가들이 잘못 인식하고 기록하여놓은것에 불과하다. 고구려가 존재하던 당시나 고려시기에는 고구려의 왕호를 시호라고 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강한 국력에 토대하여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있었으며 중세초기 우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떨치였다. 고구려사람들이 사용한 왕호에는 이러한 존엄이 안받침되어있었다.

고구려에서의 왕호의 제정 및 사용방식은 사대주의가 없고 유교사상이 사회생활 전반에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당대의 현실을 말해주는것으로서 강한 국력에 토대하여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있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에서 자주적권리를 행사하였던 주권국가로서의 독자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백제와 신라에서는 왕의 시호를 왕호로 사용하였다.

충청남도 공주의 무녕왕릉에서 발굴된 왕의 지석은 무녕왕이 죽은 해인 523년에 만든 것인데 여기에 《무녕》이라는 시호를 쓰지 않고 《백제 사마왕》이라고 새기었다. 사마는 무녕왕의 본명이며 무녕왕은 동성왕 다음왕이다. 또 《증보문헌비고》(권239 직관고26)에서 렬거한 렬대 시호자들이운데에 《무녕》의 렬자가 기록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6세기초 백제에서 왕이 죽은 후 시호법을 제정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시호를 왕호로 부르는것보다 본명을 쓰는 관습이 우세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신라에서도 왕의 시호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용된것은 7세기 중엽이후 태종무렬왕(재위 654-661)때라고 인정된다.

신라사람들은 자기 나라 렬사를 3대로 구분하여 《시조로부터 진덕왕까지 28왕을 상대라 하고 무렬왕으로부터 혜공왕까지 8왕을 중대라 하고 선덕왕으로부터 경순왕까지 20왕을 하대라》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순왕)

태종무렬왕을 계선으로 신라력사의 한 단락을 구분한것은 진덕왕까지의 왕들이 모두 성골출신이나 그 이후 성골남자가 없어졌기때문에 진골로 왕을 삼은데 있었다.

한편 《구당서》신라전에서는 신라의 렬사를 서술하면서 《왕 진평》, 《선덕을 왕으로 삼다》, 《진덕이 죽었다》 등으로 신라왕들을 표기하다가 그 이후 왕들은 《춘추》, 《법민》, 《정명》 등으로 썼다. 여기에서 진평, 선덕, 진덕 등은 시호이고 그들에게는 백정, 덕만, 승만이라는 본명이 있었다. 그리고 춘추, 법민, 정명 등은 본명이고 그들에게는 태종무렬, 문무, 신문이라는 시호가 있었다.

결국 신라에서 왕의 시호는 문헌기록상 514년에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7세기 중엽 태종무렬왕때부터 그 사용이 적극화된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있는 비석에 《태종무렬대왕지비》라는 비문의 제목글이 남아있고 문무왕이 죽은 다음 세운 비석에 《...신라 문무왕릉지비》라는 글이 새겨져있는 사실이 이것을 더욱 실증하여준다.

우리는 렬사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옳바로 인식하며 문헌기록과 함께 당시의 금석문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할것이다.